

올해 광주비엔날레 어떻게 치러지나



국제적인 현대미술축제인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란 제목으로 오는 9월5일~11월9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광주시내 일원에서 66일 동안 펼쳐진다. 특히 지난해 '신정아 가짜박사' 파문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과거적으로 '주제없는 비엔날레'를 채택한 데다 전시도 광주시내 주요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빛고을 현대미술 축제 '전시장 밖으로'

'주제 없는 전시' 광주 곳곳서 열려 3개 섹션...세계 현대미술 한자리

광주비엔날레 최초의 외국인 오쿠이 엔위저 예술총감독(45)이 이끄는 올해 광주비엔날레는 '주제없는 전시'를 통해 국제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부문은 그동안 비엔날레 전시관에서만 열렸던 행사가 유서 깊은 광주의 역사를 대변하는 광주극장과 의재미술관에서 동시에 개최된다는 점이다. 공연문화를 대표하는 광주극장은 예술영화 상영관이며, 의재미술관은 남종화의 원조인 의재 허백련 선생을 기리는 공간. 이들 장소는 비엔날레 기간 동안 현대미술 축제가 동시에 열림으로써 전통과 현대예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

통해 세계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조명하게 된다. '길 위에서' 섹션은 전시 및 퍼포먼스, 영상, 음악, 춤, 연극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현대미술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전시로 꾸며진다. 또 관람객들이 보고 놓쳤거나, 다시 보고 싶은 현대미술을 다시 볼 수 있는 무대로 진행된다. 비엔날레의 핵심전시 가운데 하나인 '길 위에서'전은 대안 갤러리, 상업갤러리, 아트페어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열린 모든 전시를 포괄하는 것을 비롯해 '작품과 관객' 등의 교류와 만남을 강조하는 작가와 작품들이 포함된다. '제안'전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유럽 출신 신진 큐레이터 8명이 각각 5명 내외의 작가들을 선정해 진행하는 '옵니버스형' 전시로, 현대미술에 대한 담



오는 9월5일 개막하는 제7회 광주비엔날레가 '주제없는 비엔날레'라는 파격을 통해 국제적인 행사로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는 세계 현대미술의 최신 흐름을 조명하는 현대미술축제로 치러진다. 사진은 제6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장면.

전시구성	
01 길 위에서 On the Road	2007~2008년 사이에 세계 곳곳에서 소개된 최신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미당, 미술, 영상, 퍼포먼스 등의 작품 30여점이 선보이는 문화적 교류와 만남의 공간 제공.
02 제안 Position Papers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유럽 및 북미 지역 등의 큐레이터 8명이 현대미술의 미래 경향을 소개하는 전시로 구성.
03 끼워넣기 Insertions	세계 각국에서 작품성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신예 미술인들의 미당. 전시를 통해 미술담론을 형성하는 장.

론과 주장을 담게된다. 특히 광주지역 큐레이터가 참가하게될 '제안전'에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별도의 주제와 공간에서 전시될 예정이어서 세계 미술 속의 광주현대미술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끼워넣기' 섹션에서는 2008광주비엔날레만을 위해 구성된 새로운 작업이나,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역동적인 전시와 이벤트로 구성된다. 이 전시에는 30명 안팎의 개별작가와 프로젝트 그룹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오쿠이 엔위저 감독은 "이번 비엔날레는 전 세계에서 진행중인 현대미술을 전시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화두를 제시하는 새로운 장으로 꾸며진다"며 "그동안의 주제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현대 미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는 미술축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해진 전시의 전체 제목은 '연례보고서'(Annual Report)다. 이 제목 아래 2008 광주비엔날레는 ▲길 위에서(On the Road) ▲제안(Position Papers) ▲끼워넣기(Insertions) 등 3개의 전시 섹션을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는 비엔날레 전시장을 비롯 광주의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유서깊은 공간에서도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이 전시될 광주극장(왼쪽)과 의재미술관.

